



시력교정술 라색, 안전하게 받자

노하우 축적된 병원인지 꼼꼼히 따져라



후가철·방학을 맞아 불편한 안경, 렌즈를 벗어버리기 위해 라식이나 라색 수술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이 시력교정술이 일반화됐지만 어떤 수술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들이 많다. 순 쉬운 선택이 아닌 만큼 수술이 안전할지, 부작용은 없을지, 정말 실력있고 경험 많은 의사인지 등 고민은 끝 수밖에 없다.

◇ 라식과 라색의 장단점

라식은 미세각막절삭기를 이용해 각막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후 아래쪽의 기자 각막판을 레이저로 깎으면서 최대 교정 시력이나 수 있는 도수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각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구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숙련된 전문의를 통해서만 부작용이나 재발의 위험을 덜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라색은 라식에 비해

(내과) 수술하는 경우 7분이 채 안 걸린다. 라식이 점차로 더 많은 장비가 동원돼야 하는 거창한 수술이 되어가는 반면 라색은 점차 더 간편한 수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색 수술에는 액시미레이저와 기타 몇 가지 소소한 수술 기구들 외에는 별다른 장비가 필요없다. 라식과는 달리 절편 제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구에 음압을 걸어 고정시키는 과정 자체가 없다.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기구들과 의사의 손으로 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라색은 쉬워 보인다.

겉보기에 쉬워 보이는 라색은 정말 쉬운 수술일까? 그렇지 않다. 라색은 수술하기는 쉽지만 잘 하기는 어려운 수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술 기법과 성적이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라식보다 훨씬 더 길다. 그만큼 의사 개인이 다

각막 얇고 근시 심하거나 스포츠 즐기는 사람 적합

라식에 비해 잔여 각막 많이 남고 안구건조증 덜해

수술의 안전성이 높아진 경우다. 각막 두께가 얕거나 근시 정도가 심할 경우, 각막이 얕지 않아도 권투나 레슬링과 같은 격투 스포츠 또는 물에 눈이 자주 닿는 수영 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라색이 적합하다.

라색의 기본 원리는 라식과 같으나 고도의 테크닉으로 각막 상피만을 벗겨 각막에 레이저를 조사해 각막을 염마하는 것으로 굴절력 교정을 시행한 후 벗겼던 각막 상피를 다시 제자리에 덮어주는 방법이다. 즉, 충분한 각막 두께를 남겨두어 라식의 문제점을 없앤 것이다.

라식이나 라색을 하려는 결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작용없이 시력교정술을 할 만큼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된 병원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라식, 안전하지만 시력효과는 시술 능력이 좌우=라색 수술은 얼핏 보기에 쉬워 보일 수 있다.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숙련된 의사의 손에서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수술이 끝난다. 두 눈을 수술하는데 걸리는 시간

들어야 할 요소가 많고 의사의 손을 타는 수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색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는 만큼 수술의 안전 측면에서는 라식을 앞선다. 그만큼 수술 초보자도 부담을 덜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수술이다.

◇ 라색의 통증·불편에 대한 이해=

수술과정에서의 통증은 전혀 없으며 약간 시리 낭느낌은 든다. 수술 후의 통증 역시 예전에 비해 거의 사라졌다.

시력교정수술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두 가지 핵심은 안전과 효과인데, 이 중에서 교정의 효과(성적)는 정확하고 고질한 연마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오늘날 가능되고 있는 레이저 장비에서 레이저의 생생과 발사 과정 자체에 에러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어, 입력된 데이터와 틀린 값의 에너지가 적용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오히려 연마될 면의 균질도가 연마의 정확도를 결정한다.

연마 면의 균질도를 확보하는 과정에 의사의 숙련도가 라식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한다. 숙련도에 있어서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성적에서의 큰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라색은,

시력교정술을 택한 30대 회사원에게 라색 수술을 하고 있다.

김재봉 밝은광주안과 원장이 2일 렌즈와 안경 착용의 불편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력교정술을 택한 30대 회사원에게 라색 수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잘 하는 것'은 어려운 수술이다.

실제로 경험하는 바로도 라색 수술에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노하우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수술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기여를 한다.

라색 수술 후 불편이 가장 큰 때는 수술 다음날 아침이다. 이때 호소하는 불편의 정도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불감에 가깝다. 과거에 표

면연마 방식의 수술을 받은 후 다음 날 아침 찔찔매부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던 것에 비한다면 지금의 라색 통증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라색 수술은 라식보다는 회복이 더딜 수 밖에 없고, 아무리 무통 라색이라고 해도 라식보다는 약간의 불편이 있다. 라색은 라식보다 2~3

일 더 고생스럽지만 각막두께가 조금

이로도 많이 남고, 라식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이 덜 하다는 점

에서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취임 100일 맞은 송은규 전남대병원장

"소통·화합 바탕 연구중심병원 만들겠다"



전남대병원이 첨단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주에 움직이고 있다.

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전남 대병원 송은규 병원장은 "우수한 교수진과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의료산업화하는 연구 중심병원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전남대병원이 보건 의료사업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추진팀을 구성하는 한편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대학병원들이 현재 처해있는 수도권 중심의 환자 쓸림현상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추진, 지방 대학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병원인지도 상승, 국내외 환자유치, 연구개발자 유인의 선순환 구조를 확대한다는 계 송 원장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송 원장은 노인 의학 등 미래 의학의 중심이 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이식과 심장개심 수술 등 그동안 부족했던 진료부문의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수도권 병원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료기능이 부족한 부문을 강화해 국내 최

아침 업무 개시 시간에 백화점에서와 같이 고객들에게 인사를 드리기도 했다. 직원들과 함께 매달 무등산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지역민들이 많이 모이는 무등 경기장 등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기부와 봉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는 취임과 함께 내세운 연구 중심병원 및 친환경 녹색병원 조성, 최첨단 진료 전문센터, 진료서비스 질적 제고를 이루기 위해 먼저 직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학병원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있다.

그는 특별한 공식 행사가 없을 경우 점심 시간은 대부분 직원들과 함께 한다. 최근에는 부서별로 돌아가며 팀장급 직원들과 점심을 나누면서 함께 호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간호사들과의 소통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송은규 원장은 "전남대병원이 외적으로는 선진국 대학병원을 앞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적으로는 직원들의 소통·화합을 기반으로 자기성취와 복지가 이뤄지는 화합의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사진=mjy@mjy@

고 수준의 전문진료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에 있다.

이와 함께 그가 취임 이후 가장 고집하는 분야는 고객 서비스다. "항상 환자 분들과 보호자들에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병원이 설립된 지 오래된 탓에 시설이 좁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 됐고, 주변 환경도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 때 주차를 못해 잠시 도로변에 주정차 한 환자나 보호자들의 차량이 견인됐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는 취임 직후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서두르고, 고객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감동을 주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본인의 취임식 때 들어온 화분을 팔아 병원 봉사회에 기탁하는가 하면,

적 중재, 지지적 중재, 신체적 중재 등에 관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치료에 대한 임상적 증상에 대한 증상별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사례별로 정신적 관리, 환경

광주시립노인요양병원, '치매환자 웃음임상치료' 세미나



광주시립노인요양병원(이사장 박 인수)이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17개 병원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환자의 웃음임상치료의 실제, 문제행동 및 심판 관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광주시립노인요양병원 웃음치료팀(팀장 김수영 간호사)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웃음임상치료 프로그램 결과, 노인 환자를 이 폐활량(급기와 호기)·통증완화·우울증 완화 등에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보인 데이터와 사례를 발표했다.

한일우 원장(용인효자병원 인지재활원장)과 김광일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 등이 치매 환자의 BPSD(행동과 정신적 증상 장애) 및 Delirium(섬망)에 관한 임상적 증상에 대한 증상별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적 중재, 지지적 중재, 신체적 중재 등에 관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치료에 대한 임상적 증상에 대한 증상별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적 중재, 지지적 중재, 신체적 중재 등에 관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치료에 대한 임상적 증상에 대한 증상별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한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 자연녹지(물류창고, 공장적합)

광산구 비바이동, 비아 IC에서 5분거리, 11,463㎡(3,468평) 3.3

㎡당 703원

▶ 계획관리지역 (물류창고, 공장 기타용도가능)

광산구 송학동, 나주 IC에서 3분거리, 21,914㎡(6,630평) 매

매 22억

▶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연수원 공장, 창고, 투자, 기타)

광산구 양동, 용성자동차 학원인근, 28,845㎡(8,726평) 대지

약4800평, 건축을 읊음. 매매가 13억원

▶ 주거지역 (병원, 사옥, 일대용상기건물신축부지적합)

화정동, 광소간도로변, 지하철역부근 대지 1,520㎡(460평) 3.

3㎡당 300만원

▶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 김정기적 9억4천

▶ 매매가격 160억원(시설비별도 협의후결정)

군산시 바이오 디젤공장

▶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 김정기적 9억4천

▶ 매매가격 18억원(협의후결정)

해남 명끌로드

▶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지하1층 지상8층)

▶ 김정기적 83억원

▶ 매매가격 35억원(협의후결정)

곡성석곡 공장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김정기적 44억천만원

▶ 매매가격 10억원(협의후결정)

논동 [4층상가]

▶ 대지 440m²[2.151m²]